

## 학업열의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학습시간의 매개효과

권은경\*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교수

### The Effect of Academic Engagement on Self-esteem in Adolescents: The Mediating Effect of Learning

Eun-Kyeong Kwon\*

Professor, Dept. of Education, Kyungnam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에서는 학업열의와 자아존중감의 관계에서 학습시간이 중학생의 성별, 지역별, 학년에 따라 매개효과가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경상남도 소재의 중학생 1,045명을 대상으로 학습시간, 학업열의, 자존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열의, 학습시간, 자존감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차이검증을 실시하였고, 주요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학습시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중학생의 학업열의는 집단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학습시간은 시지역 중학생이 읍면지역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고, 자존감은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높고, 시지역학생이 읍·면지역 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았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자존감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상관분석 결과 학습시간, 학업열의, 자존감은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셋째, 집단별로 나누지 않은 전체집단에서는 학업열의가 자존감에 이르는 직접 경로와 학습시간을 거쳐 자존감에 이르는 부분 매개모형에서 학습시간의 부분매개효과가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성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는 남학생을 제외한 여학생만 부분매개효과가 나타났고, 지역별 분석결과는 시지역의 학생에게만 부분매개효과가 나타났다. 학년별 분석결과는 중학교 2학년 학생만 부분매개효과가 나타났다. 급격한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발달 중인 중학생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성별, 학년별 개인 차이뿐 아니라 살고 있는 지역도 고려한 교육과 상담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키워드** : 중학생, 학습시간, 학업열의, 자아존중감, 매개효과

**Abstract** This study attempted to find out whether learning time has a mediating effect according to the gender, region, and grade of middle school student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engagement and self-esteem. To this end, a survey of 1,045 middle school students in Gyeongsangnam-do was conducted on academic engagement, learning time, and self-esteem. Difference verification was conducted to determine the difference in academic engagement, learning time, and self-esteem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ubjects, correlat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determine the correlation between major variables, and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learning tim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irst, there was no difference in the academic engagement of middle school students by group. In the learning time, middle school students in the city area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in the township area, male students had higher self-esteem than female students, and students in the city area had significantly higher self-esteem as the grade went up. Second, as a result of correlation analysis, learning time, academic engagement, and self-esteem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Third, in the entire group not divided by group, both the direct path through which academic engagement reaches self-esteem and the partial mediating model from learning time to self-esteem showed significant effects. In the analysis by gender, only female students excluding male students showed a partial mediating effect, and the analysis results by region showed a partial mediating effect only on students in the city. The analysis results by grade showed a partial mediating effect only for second-year middle school students. In order to improve the self-esteem of middle school students, education and counseling should be conducted in consideration of not only individual differences by gender and grade, but also the region in which they live.

**Key Words** : Middle school students, Learning time, Academic engagement, Self-esteem, Mediating effect

\*Corresponding Author : Eun-Kyeong Kwon(cantatas@daum.net)

Received September 27, 2022

Accepted December 20, 2022

Revised October 24, 2022

Published December 28, 2022

## 1. 서론

중학교 시기의 학생들은 학교에서 학업과 관련한 일들을 많이 경험하고 문제 상황에 직면한다. 학업상황에 적응력을 키워 학업성취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했을 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속하거나, 학업에 대한 가치, 의미, 열정을 느껴 집중함으로써 학업을 능동적으로 수행하는 높은 수준의 탄력성과 정신적 에너지인 학업열의가 필요하다[1-2]. 일반적으로 학업열의가 높은 학생은 긍정적 정서를 많이 가지고 있어 학업 수행 만족도가 높고[3], 학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가능성이 크고, 자기 조절 능력이 뛰어나며, 학업에 대한 노력을 지속할 수 있고 더 효율적인 학습 전략을 사용하고, 계획한 목표를 달성하는 경향이 높다[4]. 반면 학업열의가 낮은 학생들은 자신의 인지적 잠재력과 학업 성취 사이에 큰 차이를 보인다. 특히 학업열의가 없는 학생은 학업에 흥미와 열정이 없고 학업에 방해되는 행동을 하게 된다[5]. 따라서 학업열의는 자발적 학습의지와 학업에 대한 흥미를 갖게 함으로써 학업성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학습 장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다[6]. 학업열의에 관한 연구들은 학생의 학업동기를 높이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요인과 방법들을 제 공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 데 집중되어 있다[7]. 먼저 학업 열의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외적 요인으로는 부모, 교사, 친구 관련 요인 등이 언급된다[8]. 학업열의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내적 특성 요인으로는 인지적 특성(지능, 메타 인지, 창의성 등)과 비인지적 특성(자기효능감, 마인드셋, 동기, 통제, 그릿, 성실 등)이 거론된다.

한편, 자아존중감이란 자신에 대한 평가로 자기를 가치 있고 긍정적인 사람으로 여기는 정도를 말한다[9]. 자아존중감은 자기에 대한 정확한 인지적 평가인 자아개념(self-concept)과 되고 싶은 자신의 이상적 모습인 자기 이상(self-ideals)이 통합하면서 발달한다. Coopersmith은 자아존중감을 자아 관련 영역, 사회적 관계 및 또래 영역, 부모-가족 관련 영역, 학업-학교 영역의 네 가지 SEI(Self-Esteem Inventory)으로 구성하였다[10]. 자아존중감은 자아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로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11]. 초등학교를 입학하는 아동기에 자아존중감이 형성되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세분화되기 시작한다. 이렇게 세분화된 자아존중감은 다시 통합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전반적인 자아존중감으로 위계적인 구조를 형성하게 된다[12]. 자아존중

감이 낮으면 실패를 두려워하며, 다른 사람에 대한 의심이 많고[13], 자아존중감이 낮은 청소년은 문제 해결 기술이 부족하여 작은 사건에도 정서적으로 쉽게 압도될 수 있다. 청소년기의 높은 자아존중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목표를 달성하는 경험이 중요하며[14], 주변으로부터 충분한 정서적 지지를 받는 것도 중요하다[15]. Rosenberg(1979)에 의하면 자아존중감이 긍정적으로 형성된 청소년들은 이후 성인기까지 학업적, 심리적으로 보다 성공적인 수행을 성취하게 된다. 또한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가진 사람은 삶에 대해 보람이나 희망과 같은 정서를 더 많이 느끼고, 대인관계에서도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특성들을 개발해 나간다[16].

중학생시기의 학습과정이나 학습수행은 자신개념이나 자기효능감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아존중감이 학업성취와 정적인 관련을 보인다는 국내외의 선행 연구들[17-20]이 있다. 학업성취의 차이는 학교에서의 수업이라는 공통적인 조건에도 불구하고 수업 이외의 이루어지는 공부의 양과 질에 따라 다르게 발생한다[21]. 이는 학교에서의 수업 시간 이외의 학습시간이 학업성취에 중요한 요인임을[22] 예측할 수 있다. 중학생의 학습시간은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밀접한 관련이 있다[23-24].

앞선 선행연구를 정리해 보면 학업열의, 학습시간, 자아존중감이 단편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자아존중감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학습시간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살펴본 연구들은 다수 있으나 이를 매개변수로 살펴본 연구는 미비하다. 중학생 시기는 학업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이와 관련된 문제를 탐색할 때에는 학업적 성공을 위한 심리적 요소들의 관계뿐 아니라 성별, 지역별, 학년별 차이를 고려하여 전체적인 발달양상을 알아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업열의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습시간이 중학생의 성별, 지역별, 학년에 따라 매개효과가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첫째, 중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열의, 학습시간, 자아존중감의 차이는 어떠한가? 둘째, 학업열의, 학습시간, 자아존중감 간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셋째, 학업열의와 자아존중감의 관계에서 학습시간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로 설정하였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경상남도 소재의 중학생 1,100명을 대상으로 2020년 6~7월 사이에 실시되었다. 총 응답자는 1,084명이었으나 이 중 성실히 설문응답한 것을 최종적으로 1,045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대상의 성별분포는 남학생이 574명(54.9%), 여학생은 471명(45.1%)이고, 거주지역은 시지역이 548명(52.4%) 읍면지역이 497명(47.6%), 학년은 1학년이 372명(35.6%), 2학년이 339명(32.4%), 3학년이 334명(32.0%)였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research subjects

		N	%
Gender	Male	574	54.9
	Female	471	45.1
Region	Town	548	52.4
	Rural	497	47.6
Grade	1	372	35.6
	2	339	32.4
	3	334	32.0

### 2.2 연구도구

#### 2.2.1 학업열의

학업열의는 Schaufeli 등(2002)이 개발한 학생용 학업열의척도(UWSE-S)를 이자영, 이상민(2012)이 우리나라 청소년에 적합하게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하여 개발한 것을 사용하였다[25]. 한국형학업열의척도(KAED)의 설문 문항은 헌신, 몰입, 활기, 효능감이 각각 4문항으로 총 16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문항의 응답내용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4점(매우 그렇다)까지의 4단계의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열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연구대상의 학업열의에 문항내적합치도는 .920이며 하위영역별 신뢰도는 Table 2와 같다.

Table 2. Reliability of academic engagement

Engagement	Cronbach's $\alpha$
dedication	.798
absorption	.881
vigour	.862
efficacy	.817
Total	.920

#### 2.2.2 학습시간

학습시간 측정은 한국아동, 청소년패널조사의 자료를 수정하여 활용하였다. 중학생의 학습시간은 학원 및 과외

시간, 인터넷 강의시간, 방과후교실,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으로 구성되었으며 평일과 주말 시간을 합한 평균을 학습시간으로 정의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각 문항은 '1=1시간 미만', '2=1시간~2시간미만', '3=2시간~3시간미만', '4=3시간 이상'으로 평정하였다.

#### 2.2.3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 척도는 Rosenberg(1965)의 Self-Esteem Scale을 이훈진, 원호택(1995)이 변안한 것을 사용하였다[26]. 자기보고식 척도로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문항과 부정적인 평가문항을 포함한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부정적 평가문항은 역채점하였다. 전체 문항의 총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자아존중감 문항내적합치도는 .835이며 하위영역별 신뢰도는 Table 3과 같다.

Table 3. Average and reliability of self-esteem

Self-Esteem	Cronbach's $\alpha$
1,3,4,7,10	.802
2*,5*,6*,8*,9*	.762
Total	.835

\* = Reverse grading question

### 2.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5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열의, 학습시간, 자아존중감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차이검증을 실시하였고 Duncan/Dunnett T3로 사후검증을 하였다. 주요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학습시간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매개효과 검증은 Baron과 Kenny(1986)[27]가 제안한 방식을 채택하였다. 매개효과와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Sobel's test[28]를 실시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열의, 학습시간, 자아존중감의 차이 검증

중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열의, 학습시간, 자아존중감 차이는 Table 4와 같다. 학업열의는 성별, 지역별, 학년별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학습시간은 시지역과 읍면지역별로 차이를 보였으나( $t=4.212, p<.001$ ), 성별, 학년별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자아존중감은 남학생

생이 여학생보다 높고( $t=4.498, p<.001$ ), 시지역 학생이 읍·면지역 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t=2.922, p<.01$ ), 학년이 올라갈수록 자아존중감은 낮아졌다( $F=5.599, p<.05$ ).

**Table 4. Differences in academic engagement, learning time, self-esteem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Gender		M(SD)	t
Academic Engagement	Male	2.66(1.12)	0.274
	Female	2.64(1.12)	
Learning time	Male	2.63(.77)	-0.174
	Female	2.64(.84)	
Self-Esteem	Male	2.85(.73)	4.498***
	Female	2.62(.87)	
Region		M(SD)	t
Academic Engagement	Town	2.65(1.16)	-0.105
	Rural	2.66(1.07)	
Learning time	Town	2.74(.78)	4.212***
	Rural	2.53(.82)	
Self-Esteem	Town	2.84(.80)	2.922**
	Rural	2.68(.80)	
Grade		M(SD)	F
Academic Engagement	1	2.61(1.11)	1.382
	2	2.73(1.12)	
	3	2.62(1.13)	
Learning time	1	2.63(.76)	0.062
	2	2.65(.81)	
	3	2.63(.85)	
Self-Esteem	1	2.80(.81)	5.599*
	2	2.81(.80)	
	3	2.63(.79)	

\*  $p<.05$ , \*\*  $p<.01$ , \*\*\*  $p<.001$

**3.2 주요 변인 간의 상관분석**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아래의 Table 5와 같다. 학업열의, 학습시간, 자아존중감 변인들 간에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특히, 학업열의와 자아존중감은 가장 높은 상관( $r=.310, P<.01$ )을 보였고, 다음으로 학습시간과 학업열의( $r=.271, P<.01$ ) 학습시간과 자아존중감( $r=.165, P<.01$ ) 순으로 높은 상관을 보였다. 상관분석 결과 모든 상관계수는 .310~.165의 범위를 보여, 주요 변인의 다중공선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한편, 이러한 변인들의 평균값을 살펴보면 자아존중감이  $2.75 \pm .80$ 로 가장 높은 값을 보였고, 학업열의는  $2.65 \pm 1.12$ , 학습

시간  $2.64 \pm .80$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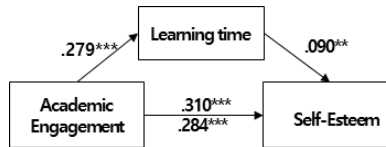
**Table 5. Correlation coefficients of main variables**

	Academic Engagement	Learning time	Self-Esteem
Academic Engagement	1		
Learning time	.271**	1	
Self-Esteem	.310**	.165**	1
Mean	2.65	2.64	2.75
SD	1.12	0.81	0.80

\*\*  $p<.01$

**3.3 학업열의와 자아존중감 사이에서 학습시간의 매개효과**

학업열의와 자아존중감 사이에서 학습시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Baron & Kenny의 절차에 따라 3단계의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Sobel Test로 검증하였다. 경로모형은 Fig. 1에 제시되었으며, 그 효과는 Table 6과 같다.



**Fig. 1. The relationship among academic engagement, learning time and self-esteem**

1단계에서 학업열의가 학습시간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였고( $F=88.333, p<.001$ ), 2단계에서도 학업열의가 자아존중감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였다( $F=30.995, p<.001$ ). 3단계에서 학습시간과 학업열의를 동시에 투입 시 이들 두 변수는 자아존중감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였는데( $F=110.683, p<.001$ ), 3단계 학업열의의 표준화계수( $\beta$ ) 값이 2단계의 .310에서 .284로 감소하였다. 따라서 학업열의와 자아존중감 관계에서 학습시간은 부분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간접효과에 대한 Sobel test결과( $Z=2.778, p<.01$ )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부분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Table 6. The results of hierarchical regressions**

IV	DV	B	se	$\beta$	$R^2$	F	Sobel's test
Academic Engagement	Learning time	0.201	0.021	0.279***	0.078	88.333***	2.778**
Academic Engagement	Self-Esteem	0.222	0.021	0.310***	0.096	110.683***	
Academic Engagement	Self-Esteem	0.204	0.022	0.284***	0.103	60.130***	
Learning time		0.090	0.031	0.090**			

\*  $p<.05$ , \*\*  $p<.01$ , \*\*\*  $p<.001$

3.3.1 성별에 따른 학업열의와 자아존중감 사이에서 학습시간의 매개효과

남학생의 학업열의와 자아존중감 사이에서 학습시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Baron & Kenny의 매개효과 검증 가정에 적용시켜 본 결과 가정에 위배되었다. 매개변인인 학습시간이 자아존중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남학생의 경로모형은 Fig. 2에 제시되었으며, 그 효과는 Table 7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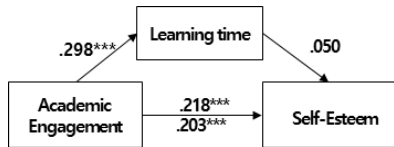


Fig. 2. The relationship among academic engagement learning time and self-esteem in male

여학생의 학업열의와 자아존중감 사이에서 학습시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Baron & Kenny의 절차에 따라 3단계의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Sobel Test로 검증하였다. 1단계에서 학업열의가 학습시간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였고(F=33.783, p<.001), 2단계에서도 학업열의가 자아존중감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였다(F=94.301, p<.001). 3단계에서 학습시간과 학업열의를 동시에 투입 시 이들 두 변수는 자아존중감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였는데(F=52.805, p<.001), 3단계 학업열의의 표

준화계수(β) 값이 2단계의 .409에서 .374로 감소하였다. 따라서 학업열의와 자아존중감 관계에서 학습시간은 부분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간접효과에 대한 Sobel test결과(Z=2.704, p<.01)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부분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경로모형은 Fig. 3에 제시되었으며, 그 효과는 Table 7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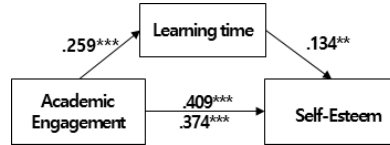


Fig. 3. The relationship among academic engagement, learning time and self-esteem in female

3.3.2 지역에 따른 학업열의와 자아존중감 사이에서 학습시간의 매개효과

시지역 중학생의 학업열의와 자아존중감 사이에서 학습시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Baron & Kenny의 절차에 따라 3단계의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Sobel Test로 검증하였다. 1단계에서 학업열의가 학습시간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였고(F=48.270, p<.001), 2단계에서도 학업열의가 자아존중감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였다(F=40.859, p<.001). 3단계에서 학습시간과 학업열의를 동시에 투입 시 이들 두 변수는 자아존중감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였는데(F=23.403, p<.001), 3단계 학업열의의

Table 7. The results of hierarchical regressions by gender

	IV	DV	B	se	β	R <sup>2</sup>	F	Sobel's test
Male	Academic Engagement	Learning time	0.206	0.028	0.298***	0.089	55.833***	1.160
	Academic Engagement	Self-Esteem	0.143	0.027	0.218***	0.048	28.580***	
	Academic Engagement	Self-Esteem	0.133	0.028	0.203***	0.050	14.971***	
	Learning time		0.047	0.040	0.050			
Female	Academic Engagement	Learning time	0.195	0.034	0.259***	0.067	33.783***	2.704**
	Academic Engagement	Self-Esteem	0.317	0.033	0.409***	0.167	94.301***	
	Academic Engagement	Self-Esteem	0.290	0.033	0.374***	0.184	52.805***	
	Learning time		0.138	0.045	0.134**			

\*\* p<.01, \*\*\* p<.001

Table 8. The results of hierarchical regressions by region

	IV	DV	B	se	β	R <sup>2</sup>	F	Sobel's test
Town	Academic Engagement	Learning time	0.192	0.028	0.285***	0.081	48.270***	2.235*
	Academic Engagement	Self-Esteem	0.181	0.028	0.264***	0.070	40.859***	
	Academic Engagement	Self-Esteem	0.161	0.029	0.235***	0.079	23.403***	
	Learning time		0.104	0.044	0.102*			
Rural	Academic Engagement	Learning time	0.209	0.038	0.269***	0.072	29.764***	0.763
	Academic Engagement	Self-Esteem	0.258	0.036	0.344***	0.118	51.263***	
	Academic Engagement	Self-Esteem	0.250	0.037	0.333***	0.119	25.910***	
	Learning time		0.037	0.048	0.039			

\* p<.05, \*\*\* p<.001

의 표준화계수( $\beta$ ) 값이 2단계의 .264에서 .235로 감소하였다. 따라서 학업열의와 자아존중감 관계에서 학습시간은 부분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간접효과에 대한 Sobel test결과( $Z=2.235, p<.05$ )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부분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경로모형은 Fig. 4에 제시되었으며, 그 효과는 Table 8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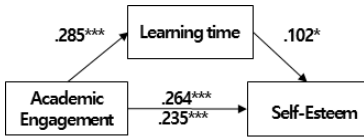


Fig. 4. The relationship among academic engagement, learning time and self-esteem in town

읍·면지역 중학생의 학업열의와 자아존중감 사이에서 학습시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Baron & Kenny의 매개효과 검증 가정에 적용시켜 본 결과 가정에 위배되었다. 매개변인인 학습시간이 자아 존중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읍·면지역 중학생의 경로모형은 Fig. 5에 제시되었으며, 그 효과는 Table 8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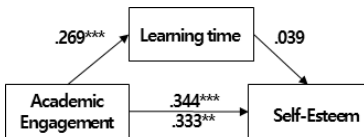


Fig. 5. The relationship among academic engagement, learning time and self-esteem in rural

3.3.3 학년에 따른 학업열의와 자아존중감 사이에서 학습시간의 매개효과

중학교 1학년의 학업열의와 자아존중감 사이에서 학습시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Baron & Kenny의 매개효과 검증 가정에 적용시켜 본 결과 가정에 위배되었다. 매개변인인 학습시간이 자아존중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중학교 1학년의 경로모형은 Fig. 6에 제시되었으며, 그 효과는 Table 9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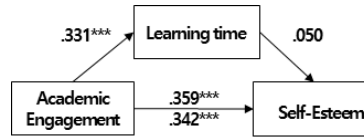


Fig. 6. The relationship among academic engagement, learning time and self-esteem in first grade

중학교 2학년의 학업열의와 자아존중감 사이에서 학습시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Baron & Kenny의 절차에 따라 3단계의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Sobel Test로 검증하였다.

1단계에서 학업열의가 학습시간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였고( $F=27.835, p<.001$ ), 2단계에서도 학업열의가 자아존중감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였다( $F=26.318, p<.001$ ). 3단계에서 학습시간과 학업열의를 동시에 투입 시 이들 두 변수는 자아존중감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였는데( $F=17.663, p<.001$ ), 3단계 학업열의의 표준화계수( $\beta$ ) 값이 2단계의 .269에서 .226으로 감소하였다. 따라서 학업열의와 자아존중감 관계에서 학습시간은 부분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간접효과에 대한 Sobel test결과( $Z=2.532, p<.01$ )

Table 9. The results of hierarchical regressions by grade

	IV	DV	B	se	$\beta$	$R^2$	F	Sobel's test
1	Academic Engagement	Learning time	0.226	0.034	0.331***	0.109	45.465***	0.954
	Academic Engagement	Self-Esteem	0.261	0.035	0.359***	0.129	54.725***	
	Academic Engagement	Self-Esteem	0.249	0.037	0.342***	0.131	27.827***	
	Learning time		0.063	0.055	0.050			
2	Academic Engagement	Learning time	0.200	0.038	0.276***	0.076	27.835***	2.532**
	Academic Engagement	Self-Esteem	0.194	0.038	0.269***	0.072	26.318***	
	Academic Engagement	Self-Esteem	0.163	0.039	0.226***	0.095	17.663***	
	Learning time		0.156	0.054	0.157**			
3	Academic Engagement	Learning time	0.175	0.040	0.232***	0.054	18.882***	1.175
	Academic Engagement	Self-Esteem	0.206	0.037	0.295***	0.087	31.625***	
	Academic Engagement	Self-Esteem	0.195	0.038	0.280***	0.091	16.572***	
	Learning time		0.061	0.050	0.065			

\*\*  $p<.01$ , \*\*\*  $p<.001$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부분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경로모형은 Fig. 7에 제시되었으며, 그 효과는 Table 9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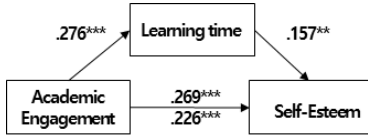


Fig. 7. The relationship among academic engagement, learning time and self-esteem in the second grade

중학교 3학년의 학업열의와 자아존중감 사이에서 학습시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Baron & Kenny의 매개효과 검증 가정에 적용시켜 본 결과 가정에 위배되었다. 매개변인인 학습시간이 자아존중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중학교 3학년의 경로모형은 Fig. 8에 제시되었으며, 그 효과는 Table 9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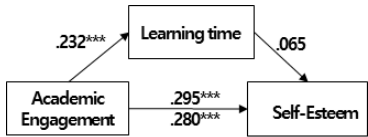


Fig. 8. The relationship among academic engagement, learning time and self-esteem in third-grade

####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학업열의와 자아존중감의 관계에서 중학생의 성별, 지역별, 학년별 학습시간의 매개효과를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업열의, 학습시간, 자아존중감의 중학생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집단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학업열의는 집단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고, 중학교 3년 동안 안정적인 특성을 보였다. 학습시간은 시지역의 학생이 읍·면지역의 학생에 비해 학습시간이 높았다. 자아존중감은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높고, 시지역학생이 읍·면지역 학생보다 높았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자아존중감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학생의 자아존중감이 성별, 학년별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는 선행연구결과와도 부분적으로 일치한다(29-31).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지역별 중학생의 자아존중감의 차이를 확인하여 중학생의 성별,

지역별, 학년간의 종합적인 차이를 파악해 보고자 하였으며 연구결과에서 측정변수 간에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다. 따라서 중학생의 학업열의와 자아존중감의 관계에서 타고난 성별이나 학년 이외의 지역별 차이도 고려해야 하고, 특히 읍·면지역의 중학생의 학습시간과 자아존중감의 차이를 간과하지 말아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었다.

둘째, 학업열의, 학습시간, 자아존중감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학습시간과 학업열의, 자아존중감은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학생의 자아존중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업열의, 학습시간을 모두 고려해야 할 것을 의미한다. 특히 학업열의와 자아존중감이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므로 자아존중감을 높이기 위하여 학업열의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학업열의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학업열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업열의가 자아존중감에 정적효과를 나타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학업열의가 낮으면 자아존중감 또한 낮아지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결과는 중학생의 학업열의가 학업성취와 학업동기를 높이고 학업성취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결과와도 부분적으로 일치한다(3-4). 학업열의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학습시간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성별, 지역별, 학년을 구별하지 않은 전체집단에서는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학생 시기의 자아존중감을 효과적으로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학습시간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특히 학업열의가 낮은 경우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러한 중학생에게 학습시간을 늘려 학습에 대한 성취를 느끼게 되면 중학생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학업열의와 자아존중감의 관계에서 학습시간의 매개효과는 성별, 지역별, 학년별로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전체집단에서는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구체적으로 성별, 지역별, 학년별 차이를 나타내지 못하였으나 성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는 남학생의 경우 매개변인인 학습시간이 자아존중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에 비해 여학생의 경우는 학습시간이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통계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여학생만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여학생의 경우 학습시간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반면, 남학생의 학습시간과 자아존중감 사이에는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지역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는 시

지역 중학생만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시지역 중학생의 경우 학습시간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반면, 읍면지역 중학생의 학습시간과 자아존중감 사이에는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학년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는 중학교 2학년의 경우만 학습시간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반면, 중학교 1학년과 3학년의 학습시간과 자아존중감 사이에는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학업열의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습시간이 매개효과가 있는지 확인 해 보았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체집단에서의 학습시간의 매개효과와 성별, 지역별, 학년별 집단을 나누어 세부적으로 학습시간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급격한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발달 중인 중학생은 자아개념이나 자기효능감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긍정적 자아존중감을 형성한 중학생들은 이후 성인까지도 삶에 대해 긍정적 정서를 더 많이 느끼고, 대인관계에서도 바람직한 특성들은 보인다[14, 16]. 중학생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성별, 학년별 개인 차이 뿐 아니라 살고 있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교육과 상담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대상은 경남의 일부 지역 청소년에 한정하였다. 지역적 특수성 문제로 본 연구대상을 전국의 학생들을 대표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학업열의와 자아존중감 사이에서 매개효과를 보이는 변수가 다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차후 연구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밝히지 못한 다른 매개변수를 밝혀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연구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열의와 자아존중감의 관계에서 학습시간의 매개효과를 성별, 지역별, 학년별 집단으로 나누어 집단별 차이를 분석한 것에 의의가 있다.

## REFERENCES

- [1] H. J. Lim, J. E. Lee.(2016). A Longitudinal Change of Self-esteem, Self-control, and Academic Achievement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16 No. 12*, 315-335.
- [2] W. B. Schaufeli, M. Salanova, V. Gonzales-roma & A. B. bakker.(2002). The Measurement of Engagement and Burnout: A Two Sample Confirmatory Factor Analytic Approach.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3(1), 71-92.
- [3] M. C. Halty, M. Salanova, S. Llorens & W. B. Schaufeli (2019). How Psychological Capital Mediates Between Study-Related Positive Emotions and Academic Performance.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volume 20(2)*, 605-617.
- [4] M. S. Kim., J. Y. Jo. (2013). Gender differences of academic burnout and academic engagement among Korean elementary school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Psychological Society*, 18(4), 477-497.
- [5] C. Suárez-Orozco, A. Pimente & M. Martin (2009). The significance of relationships: Academic engagement and achievement among newcomer immigrant youth. *The Teachers College Record*, 111(3), 712-749.
- [6] J. Y. Lee. (2013). Testing the Grade Differences in Academic Engagement Using Latent Mean Analysi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0(2), 1-21.
- [7] H. I. Jo., H. A. Lee. (2010). The Mediating Effects of Achievement Goals on the Relationship among Perfectionism, Academic Burnout and Academic Engagement.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7(12), 131-154.
- [8] H. J. Lim, S. R. Lee. (2020). The Mediating Effect of Gri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Related to Parents, Teachers, Friends, and Academic Engagement. *The Journal of Korea elementary education*. 31(1), 109-127.
- [9] J. Y. Lee. (2013). Testing the Grade Differences in Academic Engagement Using Latent Mean Analysi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0(2), 1-21.
- [10] B. Kokenes(1978). A Factor Analytic Study of the Coopersmith Self-Esteem Inventory. *Adolescence*: 13, 49, 149-155.
- [11] K. E. Bae., Y. H. Kang.(2007). Sexual Attitudes, Sexual Behaviors and Self-esteem of Male High School Students in Busan. *Tha Academic Society of Parent-Child Health*, 10(1), 36-47.
- [12] Harter, Stephen P. (1990). Search Term Combinations and Retrieval Overlap: A Proposed Methodology and Case Study. *Journal of the Association for Information Science*, 41(2), 132-147.
- [13] S. R. Kwak., M. O. Song., Y. H. Kim.(2021). Effects of Parents' Self-Esteem and Happiness on the Self-Esteem and Happines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Journal of The Health Care and Life Science*, 9(1), 11-25.
- [14] J. H. Lee., S. K. Seo. (2020). A Study on Differences



- of Attribution Style and Negative Emotion according to Type of Self-esteem in Negative Situation. *The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Psychotherapy*, 12(2), 53-67.
- [15] S. H. Park. (2019). Stability of Self Esteem and Its Predictors for Primary School Students :A Short-Term Longitudinal Approach. *The Journal of Elementary Education*. 32(3), 271-296.
- [16] E. M. Park. (2010). Effects of Adolescent's Attachment to Teachers/Peers/Mother, Self-esteem, Depression on School Life Adjustment. *Korean Journal of Play Therapy* 13(3), 75-88.
- [17] K. H. Lew. (2013). The Effect of School Adjustment, Self-Esteem, and Life Satisfaction on Academic Achievement.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4(6), 2700-2706.
- [18] D. B. Ju. (2011). The Relationships among the Elementary School Student's Self-Control, Self-Efficacy, and School life Adjustment: Focusing on Busan Area. *Journal Of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 23(2), 277-289.
- [19] M. A. Martins, F. Peixoto, M. G. Pereira, V. Amaral & I. Pedro. (2002). Self-esteem and Academic Achievement Among Adolescents. *An International Journal of Experimental Educational Psychology*, 22(1), 51-62.
- [20] Normandeau, S., & Guay, F. (1998). Preschool behavior and first-grade school achievement: The mediational role of cognitive self-control.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0(1), 111-121.
- [21] Squires, D. A., Huitt, W. G., & Segars, J. K. (1981). Improving classrooms and schools: What's important. *Educational Leadership*, 39(3), 174-179.
- [22] E. B. Cho, & S. W. Park. (2016). Mediating Effects of Academic Self-efficacy and Behavioral Self-regul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tudy Time and Achievement in Adolescence: Focusing on the Self-Study Time and Private Tutoring Time. *Journal of the Future Youth Association*, 13(1), 115-139.
- [23] Y. H. jeong, & J. Y. Jeong. (2017).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Academic Achievement of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Research in Educational Administration*, 35(2), 1-20.
- [24] J. Y. Choi, & C. D. Chung. (2017). A longitudinal study on the effects of learning strategies used by students on academic achievement. *Learner-centered curriculum education research*, 17, 511-530.
- [25] J. Y. Lee., S. M. Lee. (2012).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Korean Academic Engagement Inventory.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Methodology Studies*, 24(1), 131-147.
- [26] H. J. Lee, H. T. Won. (1995). Self-Concepts and Paranoid Tendency. *Psychological Science*, 4(2), 15-29.
- [27] R. M. Baron & D. A. Kenny.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3.
- [28] M. E. Sobel. (1982), *Asymptotic Intervals for Indirect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s models*, In S. Leinhardt(ed), *Sociological Methodology*. San Francisco: Jossey-Bass.
- [29] H. C. Choi (2022). Reciprocal Relationships between and Grade Latent Mean Differences of Happiness and Self-Esteem in Middle School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Education*, 49(2), 5-36
- [30] X. Huang, T. S. Shin. (2021). Teacher-Student Relationships, Self-Esteem and the Academic Helplessness of Middle School Students: A Multiple Group Analysis by Gender.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42(1), 163-198.
- [31] H. J. Lim, H. C. Choi, M. H. Hwang.(2017). The Longitudinal Reciprocal Predictability of Peer Attachment, Self-Esteem, and Life Satisfaction among Early Adolescence: Focusing on Gender Differences. *The Journal of Korea elementary education*, 28(3), 151-172.

권은경(Kwon Eun-Kyoung)

[중신회원]



- 2013년 2월 : 경남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교육학박사)
- 2018년 3월~현재 :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조교수

- 관심분야 : 교육심리, 상담
- E-Mail : cantatas@daum.net